종교학회·교불련 세미나 '20세기에서 21세기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준비가 한창인 요즘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는 20세기에 대한 평가 및 분석과 21세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가 연이어 열렸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준)는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세미나 '20세기 종언과 21세기 시작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정치경제·사회복지·전통사상적 측면으로 접근해 5월31일 조계사 불교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종교-20세기에서 21세기로'를 대주제로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는 5월29일 오전에는 공동주제 발표회를 오후에는 불교 유교 도교 등 각 분과별 발표회를 가졌다.

"인류공생의 길은 팔정도 실천"

◇박경준 교수

◇이재헌 박사

종교학회 불교분과

▲21세기 문명의 불교적 모색-박경준 교수=열반이 불교의 최고선이며 궁극적 목표라고 할 때, 둔명적 대위기에 직면한 인류에게 불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류문명은 '열반 지향의 둔명' 또는 '열반문명'이라 할 수 있다. 팔정도에 대한 분석은 열반 둔명의 큰 방향을 가늠하는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열반문명은 오늘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경제구조 및 우리들의 경제생활 전반에 대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물질적 풍요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열반문화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각종 대중매체와 소비지향적인 대중문화, 보는 스포츠 열풍을 적절히 통제하는 대신 들뜬 사회를 진정시켜줄 명상문화(또는 선정문화)와 심성문화의 흐름을 만들고 명상산업 또는 심성사업이라 이름해도 좋은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시켜야 한다. 또 교육 문제에 특히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열반지향의 새로운 문명을 모색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불교계는 첫째 대중의 삶과 사회현실에 보다 적극 참여하는 참여불교로 거듭나야 하며, 응용 실천 불교학 분야를 강화하고, 둘째 사찰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백팔보시'(자신의 수입 중 100분의 8을 재적사찰이나 불교단체에 정례적으로 헌납하는 것)제도 확립, 셋째 〈통일불교성전〉 발간, 넷째 불교도 환경 실천 지침 제정, 다섯째 출가자의 계율 정비가 필요하다. 끝으로 불교인의 국제적 연대가 더욱 확대되고 공고해져야 한다. 불교가 새로운 불교적 문명의 흐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제적 조직과 연대가 더욱 절실히 요청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 한국 불교개혁 패러다임의 성격과 한계-이재헌 박사(정신문화연구원)=권상로 한용운 이영재를 중심으로한 불교개혁과 패러다임의 공통적인 의의는 첫째 개혁의 전제조건으로서 불교인의 정신적 자각, 둘째 통일적인 교단의 건설, 셋째 포교와 교육 중시, 넷째 불교의 평등주의 강조 등이다. 이들의 불교개혁론 한계는 개혁 모델 설정 과정에서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 경계가 너무 지나쳐 모방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명상문화사업 육성 '들뜬 사회' 진정
"불교인 철저한 역사인식 필요하다"

한국 불교사상 최대의 법난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억불책과 일제 강점기의 사찰령에 대해 불교계 내부에서 정법 수호를 위한 조직적인 반발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국가 권력과 밀착된 한국 불교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해방이후 최근의 정화개혁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불교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인들이 철저한 역사 인식과 종교문화적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불교학의 진흥이 필요하다. 학문을 통한 비판적인 자기 의식이 없이는 진정한 개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는 일제의 사찰령이 남긴 조직의 관료성을 청산하는 것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불교 종단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교불련은 5월31일 봉축기념세미나를 열었다.

교수불자련

▲기조발제-고준환 교수(경기대)=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수련 과정으로 조심(調心), 조식(調息), 조신(調身)의 조삼법(調三法)이 있다. 조심은 마음공부이며, 조식은 호흡공부, 조신은 조화로운 몸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삼법이 있다. 인간의 자기 전개법칙으로서 자치법(自治法), 자타공존법칙으로서 공평법(公平法), 사회유지발전 법칙으로 신의법(信義法)과 평화변경법을 합친 평화법이다. 이 사회삼법과 불피해행, 인격예우, 약속준수의 사회삼륜을 현대사회의 기본윤리로 삼자.

세계의 경제체제는 하나의 통화체제를 전제로 불교적 경제체제인 화합중(和合衆) 경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정치경제적 측면-심익섭 교수(동국대)=미래 한국불교가 정치경제적 역할과 관련해 고려해야할 점은 첫째 정치와의 관계나 자본주의 논리로부터의 자주성 확보, 둘째 불교 내부적 정치 매커니즘의 합리화, 셋째 불교의 대외적인 정치경제 역할 재정립, 넷째 종단정치의 고차원 지혜 필요, 다섯째 21세기 불국토 건설을 위한 불자 원력의 총체적 규합, 여섯째 투명한 종무행정 재정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열린자세 견지, 일곱째 재가불자들의 역량 강화 등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불교는 인간과 인간의 화합과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선업을 행하게 한다. 그렇기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현대사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상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교가 21세기 복지사회의 건설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불교사상의 현대화와 사회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불교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요인이 사회구조적 차원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토사상적 측면-지광스님(능인선원)=현대의 물질적 세계관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은 부처님 말씀에 있다. 〈대방등 대집경〉에서 부처님은 대지정기(大地精氣)라 하여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중생정기(衆生精氣)라 하여 욕망과 탐욕에 오염된 마음의 정화를, 정법정기(正法精氣)라 하여 깨달음과 자비실현의 수행 정진을 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교 인터넷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불교교육 이상으로 인류를 변모시킬 수 있는 길은 없다. 알아야 수행을 하고 가르쳐야 수행을 하고 배워야 수행을 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불교교육 이상의 교육은 없다"
불교적 和合衆 경제체제 수립해야

"종교 배타성 구조조정 1순위"

최준식 교수 '한국의 종교 존재당위성' 발표

우리나라 종교계야말로 구조조정 대상 1순위이다. 20세기말 21세기 초에 인간 그것도 한국인으로 산다는게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종교기관이 극히 드문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구조조정에 외부세력은 어느 누구도 관계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종교가 국민들에게 영혼의 사회적 및 초월적 안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종교 역시 어떤 식으로든 내적인 조정을 겪어야 한다. 우리나라 종교계는 각각의 종교들이 철옹성을 싸고 다른 종교가 어떻든 사회가 어찌되든 상관않고 배타적인 자세로 그 안에 안주하면서 종교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인데 불교는 전근대성, 기독교는 토착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매 주말 절을 찾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면 포교에 따로 신경 쓸 필요없이 불교신도의 증가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 기독교의 경우는 겉모습은 기독교일지 몰라도 그 내부는 유교식의 가부장제 문화와 배타성으로 똘똘 뭉친 편협성,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광기만이 넘칠 뿐 한국적인 기독교문화는 아직 태동되지 못했다. 스스로가 한국적인 기독교인이 되려고는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교(異敎)의 역사로 점철된 한국을 '복음화'해야 한다고 믿는 전도된 세계관을 버려야 한국적인 기독교문화를 태동시킬 수 있다.

"경허의 정신 새 시대의 좌표"

불교선학硏 학술회의서 최동호교수 주장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전환은 그 이전의 세기적 전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21세기에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불사나 벌이고 스스로는 명리 추구에 급급할 것인가. 아니면 경허와 같이 대발원을 세우고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는 불교적 깨달음을 증득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할 것이가."

한국불교선학연구원(원장 이은윤)이 경허대선사 열반 87주년을 맞아 5월28일 개최한 제1회 한국불교선학학술회의에서 '경허의 선적 계보와 화두의 시적 해석'을 발표한 최동호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경허의 선사상과 역사적 위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경허의 선사상, 선정관, 결사운동, 불교사적 위치 등이 발표됐다.

〈논문은 부다피아에 수록〉

"근본불교와 대승 다르지 않다"

한국불교학회 세미나서 조용길교수 주장

"불타의 근본사상에는 대승도 소승도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의 파악과 규명에 그 이론적인 측면이 불교철학적이론 전개였고, 그 심성적 수도, 수행, 심성계발이 불교의 종교적 측면이며, 그 불교의 실천적 측면이 불교의 윤리적 측면으로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사무량심(四無量心) 실천이 있다. 사법인 사섭법 사성제에 나타나는 무아사상의 연기적 중도관은 공 반야로 이어지는 대승의 근본이 되어 있음을 간파하여 이들을 연결하는 불타의 진리성을 알아야 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인덕)가 5월28일 개최한 제31차 춘계학술연구발표회에서 조용길 교수는 '근본불교와 대승정신의 본질'에서 불타의 진리는 근본불교와 대승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목정배 교수(동국대) 등이 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비판불교는 경전이해 선행돼야"

고려대장경硏 '비판불교' 세미나서 제기

"마츠모토 박사, 다카사키 박사 등 비판불교학자들은 경전의 해석에 있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작업이다. 비판불교가 비판하고 있는 이론들 자체가 경전에 대한 비뚤어진 이해에서 오는 것이다. 비판불교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가 5월29일 개최한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 제1차 세미나에서 안승준 박사(동국대)는 '불교에 있어서 비판적 방법론의 전통과 비판불교자들의 비판적 방법론'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판불교: 사회윤리적 관심으로서의 비판과 장소론'(심재관 박사)도 발표됐다.

6차까지 열리는 세미나에서 비판불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에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술단신

진각논문 작성자 선정

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은 5월 25일 제1회 진각논문대상 공모전 논문계획서 심사를 실시, 남희숙씨 등 6명의 논문작성자를 선정 발표했다. 6명은 4개월간의 논문작성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회를 개최하며 12월중 시상식을 갖는다. 논문계획서 당선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남희숙=조선후기에 간행된 다라니경과 진언집에 대한 연구 △김성관=적호의 진실강요에 나타난 세계기원론 비판 △임승택=초기불교와 요가수트라의 선정관에 대한 비교연구 △강종원=나가르주나의 논리에 있어서 성언량의 필연성 여부에 대한 고찰 △권기현=인도불탑에 담긴 상징성에 관한 연구 △강명희=아비달마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태-성종시대 미술발표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2일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태 성종시대의 미술을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창균 위원(문화재관리국)이 태·성종시대의 공예를, 이원복 미술부장(국립중앙박물관)이 태·성종시대의 회화를 각각 발표한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진달래

누구에게 보이려
꽃망울 꽃을 피웠나

곱디고운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리운
솜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드폰 : 018-277-5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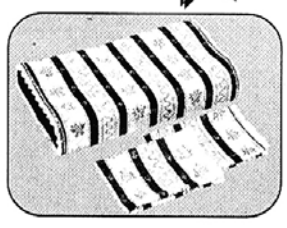
가야 피라미드 황토방

고대 이집트의 신비 피라밋과 황토방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피라미드 황토방에서
"생동하는 기를 느껴보십시오."

혈액흐름을 촉진한다.
통증을 완화한다.
공기를 청정하게 해준다.
물을 연수(軟水)화 시킨다.
진정, 안면효과가 있다.
+
신선도 향상
원적외선 생성
집중력 향상
씨앗의 발아생장촉진
탈수현상에 의한 미라효과
II

사무실 : 경남 창원시 대원동 94-8
T. (0551)276-7686
H.P (011)840-3016

디몬 한방 옥베개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잣나무 함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의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이런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짧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쾌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 만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명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결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사가 필요하신 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 분
· 코걸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세광산업(주) 주문처: 02)766-8273~4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難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용린佛字체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상 그림, 難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선묵가협회 전대작가로 추천함.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藝術文化院
韓國佛敎禪墨家協會